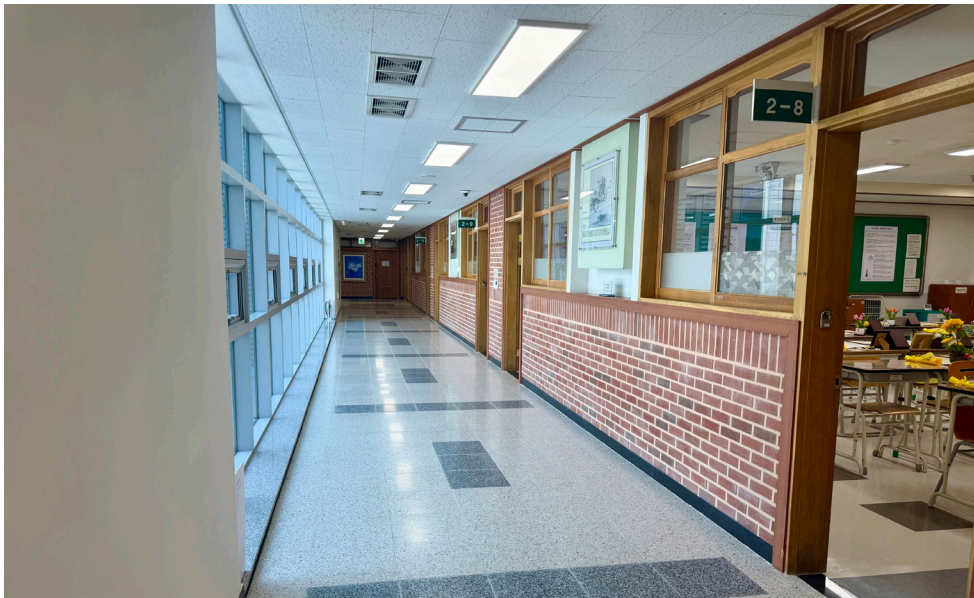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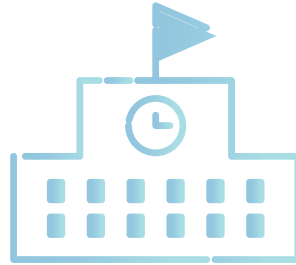
우수상

그래도 피어 있으려는 건가



MBC

이승지 기자



멈춰 있는 봄

4월 중순의 단원고에는 아직 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학교 곳곳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전날 찾았던 기억교실 앞 나무들은 이미 꽃이 지고 초록빛으로 가득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직도 군데군데 봄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 위로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다른 곳은 벚꽃이 다 졌는데 여기는 벚꽃이 피어 있네요.” 가볍게 던진 말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만 유독 벚꽃이 안 떨어졌네요. 16일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피어 있으려는 건가..” 벚꽃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자꾸만 그날로 되돌아가는 듯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 옆 벤치에 앉아 있는데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다가와서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소원이 있어.

너 웃으면 예쁠 것 같아.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안 웃었거든요. 그때 웃어줄 걸 그랬어요. 그 친구는 못 돌아와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란 리본 배지를 단 중년의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나 기억하니? 같이 배를 탔던. 나는 계속 여기 있어.” 두 사람 사이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과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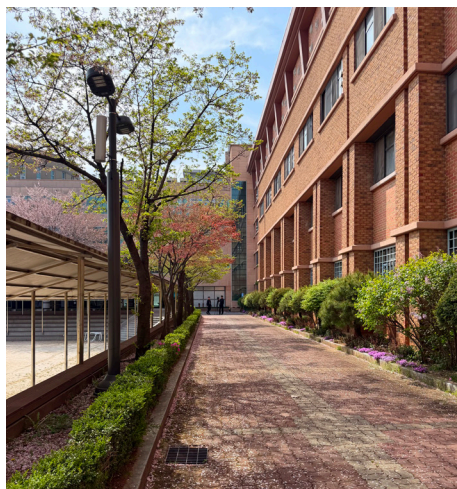
붙잡은 봄

그들의 말을 오래 붙잡고 있던 이유는 어쩌면 저 역시 어떠한 상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소중한 친구 한 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을 조금



경기 안산시 단원고의 모습. 4월 중순 단원고에는 커다란 벚꽃 나무가 펴 있다.

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저도 모르게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저도 그 상처가 무엇인지 안다는 양 말입니다. 돌이켜봐도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힘듭니다.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가장 마음이 찢어질 이들에게 연락해 인터뷰를 부탁하는 죄책감을 떨고자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저 역시 위로를 받고 싶단 욕심이었던 걸까요. 지난해 세월호 인터뷰 때는 제 얘기를 하다가 유가족을 붙잡고 통곡을 해 오하려 저를 위로해주는 다소 민망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생존자 세 명을 인터뷰했으니 저는 제 상처를 세 번 다시 꺼내 보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상처로 남은 추억의 자리에 다시 새살이 돋는 걸까요. 아. 삶은 후련함과 미



인터뷰 후 함께 걸은 단원고 운동장 옆길.

안함, 그리움, 죄책감 모두 동시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피어 있는 불

흐르지 않을 것만 같던 시간도 흘러 살아남은 학생들은 이제 서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도, 취업을 한 사람도, 또는 출산의 기쁨을 얻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잘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원망과 아픔보다 그리움이 더 크다고도 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피하지 말고 책임은 꼭 지자. 변명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해야 하는 몫을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2026 기자의 세상보기



멀리서 바라 본 단원고의 풍경, 노란 개나리꽃이 가득하다.



경기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 외경.

있어요.” 다른 생존자는 자신이 받은 “혜택”들에 책임감을 느껴 세월호와 관련된 인터뷰는 거절하지 않고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망, 고통, 힐난, 자책. 그 어떤 단어도 온전히 감당해선 안 될 열여덟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맡은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어른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곁을 지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기사에서는 생존자 A씨, 유족 B씨와 같은 알파벳으로 사람을 표현하고 모자이크로 가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너머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제가 어떠한 특권을 누리는 것 같기도, 모자이크라는 벽을 넘어 마주한 눈들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차마 기사에 담기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맺힌 송글 땀, 어색한 웃음소리, 머리 위로 훑날리던 벚꽃잎, 사물함에 붙인 각자의 좌우명, 오바마 대통령이 단원고에 전달해 이제는 사람 키보다 훌쩍 커진 목련 나무 ‘버락이’, 실없는 농담, 또 뽕깻단 안부를 말합니다.

2014년의 봄에서 2026년의 봄까지,
멈춘 시간 속에서도 그래도 활짝 피어
있으려는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맞잡고 때로는 내미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저는 그 봄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MBC 이승지 기자